

# 광주 첫째아 출산 5만원... 전남 중기 인턴 청년에 최대 400만원



윤장현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열린 '오월음악과 함께하는 2016년 송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27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열린 '2016년 전남도·시·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전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상생발전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2017부터 광주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출산 축하금 5만원이 지급되고 빛 공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광주시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부터 복지 분야 정책을 비롯해 경제, 재정, 환경, 일반행정 등 모두 5개 분야에 4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복지분야에서는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축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첫째아에게도 5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 지급액을 인상, 둘째아의 경우 15만원, 셋째아 이상은 55만원, 쌍둥이와 세 쌍둥이는 각각 60만원, 115만원이 지원된다. 이 제도는 광주시 자체 시책이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 대상은 기존만 24개월 이하에서 36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이전과 같고,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의 최대 75%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영아를 돌보는 서비스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의 경우도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 소득 60% 이하인 대상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까지 확대 지급된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등에게 지원하던 자립정착금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경제분야에서는 노인층의 가스취급 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타이머류 등 가스안전장치가 보급되고, 아파트의 노후 기계식 전력량계도 전자식 계량기로 무상 교체된다.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가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 오른다.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거치형 태양광을 보급하는 발코니형 빛고를 발전소 보급가구에 대한 보조금은 40만원에서 57만원으로 상향된다.

가정분야에서는 스마트폰과 SNS, 핀테크를 이용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납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분야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빛 공해의 효율적인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조명환경 관리구역별로 허용된 빛 방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빈병 반환 시 지급되는 보증금이 소주

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씩 인상된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반기 중 실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종이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전자계약 방식과 병행해 사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예금계좌에서만 가능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 6월1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되고, 스마트폰과 SNS, 핀테크를 이용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납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분야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빛 공해의 효율적인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조명환경 관리구역별로 허용된 빛 방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빈병 반환 시 지급되는 보증금이 소주

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씩 인상된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반기 중 실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종이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전자계약 방식과 병행해 사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예금계좌에서만 가능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 6월1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되고, 스마트폰과 SNS, 핀테크를 이용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납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분야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빛 공해의 효율적인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조명환경 관리구역별로 허용된 빛 방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빈병 반환 시 지급되는 보증금이 소주

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씩 인상된다.

## 전남도

내년부터 전남도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1~3년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여성농업인 5만3000여명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행복 바우처'가,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용품이 각각 지급된다.

전남도는 27일 저소득층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확대,

학 전 아동 1500명에게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원을 지원하고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을 운영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여수와 강진에 각각 10곳씩 신설해 4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를 지원한다.

경제·일반행정 분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 설치 어선용 3t 이상 어선에서 2t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근교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0건이 바뀐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예방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물별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2019년까지 경보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와함께 ▲소주·음료수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을 1병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16건이 변경된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한기당 지원비를 4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고 ▲가정위탁이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자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2만원 인상한 월 12만원을 지원하는 등 13건의 바뀐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안상현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우체국과 농협 등에 배부되는 책자와 홍보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빛공해 예방 市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확대 지급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 대상 36개월 이하로

### 여성농업인 5만3000명 年 10만원 '행복바우처'

### 폐지 줍는 어르신에 교통안전용품 지급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여수·강진에 추가 신설

### 농지 사용 임야 지목변경 특례제 한시적 운영

발작물고정직불금 인상 등 서민배려시책, 경제·일반행정,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복지, 안전·환경 6대 분야 101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서민배려시책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도 및 시군이 추가로 20%를 투자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70%까지 보조하며 ▲어업인 신용보증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저소득층 취

육성자금을 1000억원 늘린 38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가경영 안정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발작물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5만원 인상해 각각 45만원과 55만원을 지원하고 ▲50cm 미만의 산지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인산물 재배 가능토록 허용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를 운영하는 등 18건이 새롭게 시행된다.

#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미국으로 수출하는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는 육질이 단단하여 씹힘성이 좋은 고급횟감입니다.
- 초밥용 횟감으로 최고인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에는 기능성 성분이 EPA 및 DHA 등의 함량이 많아서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수산물 많이 먹는 에스키모인, 일본인은 무병 장수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선 중에 많이 들어있는 EPA, DHA, 타우린 등의 기능 성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생선횟감으로 치는 광어보다 참송어의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을철의 최고의 횟감인 전어와 지방 함량이 비슷합니다. 한편, 기능성 성분인 EPA 및 DHA는 전어의 1.5배, 도다리의 8배 높습니다. 따라서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를 먹으면 성인병 예방효과로 인하여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동왕의녹차 참송어 드시고 성인병예방과 백세건강하세요.~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하동군어류양식업연합회 / 하동녹차참송어영어조합법인

구입·유통문의 | 055)883-9715